

# 包裝 Seller와 包裝 Buyer의 對話

골판지포장 업계에 바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부 과장 김 영 일

## 1.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개황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그동안 수출보다는 내수에 역점을 둔 관계로 포장재질, 포장디자인 등의 개발 및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저조했으며, 주요 수출경쟁국의 포장에 비하여 품질과 수준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용 농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및 장기간의 배송기간을 감안할 때, 내수용과는 달리 포장재 강도를 높이고 흡습 방지책이 요구되며, 수출국의 취향, 거래관행 및 규격, 선호하는 색상과 디자인등을 고려해 포장재의 재질, 디자인 및 포장방법 등에 있어서 선진기법을 활용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인 일본, 유럽, 미주 소비자들은 상품의 포장을 상품의 품질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점에 유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선진기법 포장을 참고하여 우리의 독특한 포장기술과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포장 외관상의 표기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외국어 표기로 해외수입상과 현지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이해를 돕

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수출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포장업계에 참고가 될까하여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된 포장문제점을 약속하고저 한다.

## 2. 수출포장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장재질에 있어서 농수산물은 생물인점에 비추어, 유통과정 중에도 계속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과 습기가 배출되며, 특히 수출시에는 장기간 보관, 여러단계 상하차 작업 및 냉장컨테이너 운송으로 더욱 강도를 높여야 하며, 방수, 방습 처리가 철저하게 요구된다.

코팅처리면에 있어서 세계 제2위의 사과 수출국인 칠레에서는 포장 겉면과 안면에도 코팅처리를 하며, 내부전체를 PE필름으로 랩핑하여 청결함을 유지하는 등 포장방법이 소비자 및 바이어에게 바람직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품 상자에 코팅처리를 하지 않아 외부 디자인 및 인쇄글씨가 선명하지 못하며 방습, 방수, 강도가 약해 내용물 손상이 발생하므로써 타

국산에 비하여 상품성이 우수하고 고품인테도 불구하고 현지 소비자에게는 외관상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바이어에게는 판매상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장디자인은 우리 상품이 외국상점에서 타국산 수입품과 동시에 진열 비교될때, 비로서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요소로 직접 작용하는 제품의 이미지인 만큼, 각별히 유의하여 세련되고 국제감각을 갖춘 디자인 개발이 요청된다. 또, 수입국의 포장규격과 바이어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라벨 부착시 표시언어도 영어, 수입국언어 2개 국어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과, 배는 외국에서 고급품으로서 주로 선물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송 포장의 일반적인 중량 10Kg, 15Kg 단위를 5Kg, 3Kg 등 다양한 형식의 소비자 포장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 포장 형태는 A-1형(윗면에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날개로 봉합: 국내 유통상자의 형태와 동일)이나 외국의 선진

포장형태는 C-3형(한쪽 끝이 없는 골판지박스 2개를 서로 덮어 씌운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수출대상국의 유통상황에 맞게 포장형태가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한편 Bar Code 표시에 있어서 독일, 화란, 영국 등 유럽과 일본은 12자리를 사용하나, 미국은 이를 개선 축소하여 8자리 Code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으며 포장 봉합부분이 접히는 곳을 피해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은 부피가 커 포장이 둥근 형태가 대부분인 바, 가로로 인쇄함으로써 코드를 감지할때 스캐너를 돌리는 불필요한 노력이 필요치 않도록 세로로 인쇄하여야 하겠다.

### 3. 주요 농산물 분류별 수출포장 상자 세부개선 방안

#### 가. 과 실 류

미주지역에 수출되는 사과, 배의 포장방법은 과거 대포장(10Kg, 15Kg) 방법을 지양하고 소포장화(2Kg, 3Kg, 5Kg)하여야 하며, 실물이 보일 수 있도록 윈도우 또는 여닫이가 가능토록 하거나 투명셀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이 대포장일 경우 조작성이 어렵고 상자당 가격이 비싸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고가 느낌을 받게되어 구매를 꺼리며, 상자내 과실을 볼 수 없게 봉인 Packing함으로써 우수 상품에 대한 시각적 충동구매 욕구를 유발하지 못한다.

포장재질에 있어서도 강도를 높여 수출국 도착 판매시 압상과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포장상자 형태도 상하 상자간 연결홈을 만들어

고단 적재가 가능케하여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한사람이 Hand Car에 의해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 및 현지 판매상의 운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한편 포장상자의 단일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현재 수출업체별 개별상자를 이용 수출하는 실정으로, 상자의 색깔이 단색 인쇄처리되어 시각적 매혹을 유발하지 못하며 디자인 또한 조잡하다.

한편 냉장컨테이너 선적 적재시 종전 수작업 방식을 지양하고 팰리트화함이 절실히 요청된다. 미국 시애틀, 타고마항, 캐나다 밴쿠버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해외의 과실류 주요 양육항에 칠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외국산 사과, 배가 수천, 수만톤씩 항구에 도착, 창고에 입출고되고 또 미국의 경우 California, Oregon, Washington주산, 유럽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타국의 사과, 배가 육로수송 및 입출고

될때에 과실이 규격적재된 상태에서 팰리트 단위로 상하차, 운반됨으로써 시간절약과 작업능률 향상및 상품성 유지 효과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 사과, 배는 당초 컨테이너에 Stuffing 선적 시점부터 팰리트 없이 상자 하나씩 수작업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함으로써 이를 입,출고시킬 때 많은 작업시간과 작업인력이 소요되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상온에서는 입, 출고시 운반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품질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이중손실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적시 팰리트화하여 작업능률 제고 및 경비절감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우리 과실을 세계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과일상자를 조작하는 후진성에서 조속히 탈피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팰리트화함이 시급하다. 팰리트는 목재와 프라스틱



그리고 지류 펠리트가 있는데 각각 제작단가는 9천원, 1만 3천원, 7천원, 정도로서 일회용이며, 규격은 컨테이너에 알맞게 가로 110cm× 세로110cm× 높이14cm이다.

목재는 무겁고 약할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가 생겨 불결하며, 식물검역을 필요하여야 하므로 훈증소독비 부담의 단점이 있으며, 지류 펠리트는 저렴하고 가볍기 때문에 중량과 관련한 Cost면에서 우수하나, 최근 채택된 소재라는 점에서 품질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합성 수지제는 목재와 달리 부스러기가 없고 부식되지 않아 청결하여 과실운송에 적합하나,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불가 난분해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금년도 과실류 수출전량을 펠리트하여 선적코자 이소재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

#### 나. 채 소 류

우리나라 채소류의 주 수출시장은 운송거리상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신선도 유지가 생명이므로 수확시밭에서 바로 예냉 처리하고 수송, 저장 때에도 저온유지와 포장상자의 개선에 신경을써 초기품질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채소류는 UR타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생산성 향상, 계획생산, 신선도 유지, 포장개선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여야할 시점에 와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하고있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포장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자 한다.

딸기는 맛과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서 고가에 수출되고 있는데 현재 10Kg, 15Kg 스티로폼 박스에 200g씩 트레이 포장 2~3단 적립 포장하고 있으나 환경라운드(GR)에 대비 스티로폼 사용을 자재하고 2Kg, 3Kg 강화 골판지 상자를 이용 200g, 300g트레이 1단 적립, 소포장 수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 양파는 현재 20Kg 그물포장임에 따라 상품의 특성 및 산지, 포장 단량 등을 표시하는 인쇄라벨 부착이 불가능하나,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여 직접인쇄하고 포장 또한 핵가족화 추세에 부응 1Kg, 2Kg, 3Kg 등 소포장화가 요구된다. 양배추, 배추, 대파는 현재 10Kg, 15Kg 골판지 상자로 봉인 Packing함으로써 적립 내용물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선도유지 곤란 및 품위확인이 불가능하나, 박스의 상단 1면을 윈도우화, 또는 위덮개를 톱슨처리하여 냉장컨테이너에 적재시 원활한 냉기 순환으로 선도를 유지하고 실물이 보이게 함으로서 품위식별 가능 및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화 훼 류

92년 우리나라 전체 절화류 수출실적이 9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정부의 화훼산업 육성시책 및 농유공사의 획기적 수출노력에 힘입어 '93년에는 100만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97년에는 1,000만불 수출목표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으로서 백합이외에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 수

출유망 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 품목의 다각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재배기술 개발, 해외정보 수집 및 분산화대,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정부의 수출지원 확대가 요청된다.

한편 선인장(접목선인장)은 재배기술 및 품종이 세계적으로 최우위에 있으며 우리 접목선인장의 색과 모양이 타국산에 비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워 국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개발로 재배기술이 앞서 있는 품목이다.

미니 접목선인장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또한 우위에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절화류 수출과 마찬가지로 각별한 대책을 수립, 포장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꾀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의 포장개선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은 포장업계의 포장재질 및 디자인에 대한 부단한 연구, 개발노력과 수출업계의 해외 바이어 안정적 관리,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정부의 수출지원 시책확대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UR타결, 환경보호(GR), 노동문제(BR), 경쟁조건의 평준화(CR)등의 모든 국제적인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우수 품위의 우리 농수산물을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재고하고,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정착시킬때 우리 농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세계인의 식탁에서 함께 하리라 본다.